

The Loft Garden

Perfect Imperfection

우연히 들어선 303호 로프트(Loft)는 생소한 분위기지만, 이상하게도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이곳은 예술가들의 창작과 고뇌가 담긴 안식처다. 열린 문으로 들어서면 독특하게 재조합된 가구들과 화장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큰 창에서 들이치는 햇살이 따스한 로프트 가든이 펼쳐진다. 공간을 장식하는 식물과 꽃의 배치도 이색적이지만 왠지 모르게 포근한 느낌을 준다. 깨진 흔적을 머금거나, 마감이 완벽하지 않은 식기들로 차려진 다이닝 테이블마저도 성대하게 여러분을 맞이한다.

공예, 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섯 작가(craft rim, 김다정 플라워베리, 김비, 김태연, 이상훈, 이우재)는 소외될 법한 재료들을 모아 소중하게 다루고, 숨결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모습의 완전함으로 엮어낸다. 불완전함에 대한 이들의 해석이 곳곳에 담긴 <The Loft Garden>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참여작가

Craft Rim, 김다정 플라워베리, 김비, 김태연, 이상훈, 이우재

공간

Space B-E, 서민법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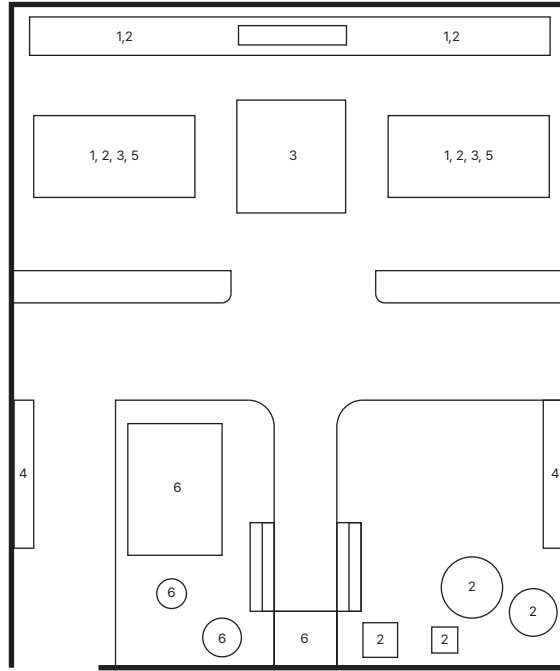
Space B-E

일시

3월 22일(금)-4월 20일(토)

월-금 11am-6pm, 토요일 및 공휴일 11am-5pm, 일요일 휴관 (3월 23일(토)은 11am-6pm까지 운영됩니다.)

2024.03.22-04.20



- 1. 김수미 Craft Rim
- 2. 김비 Kim Bi
- 3. 김다정 Kim Dajung Flowerberry
- 4. 김태연 Kim Taeyoun
- 5. 이상훈 Lee Sanghoon
- 6. 이우재 Lee Woojai

-
- | | |
|----------------------------------------|-------------------------------------------------------------------------------------------------------------------------------------------------------------------------------------------------------------------------------------------------------------------------------------------------------------------------------------------------------------------------------------------------------------|
| 01 김수미
Craft Rim | <p>Craft Rim 김수미 작가는 따로 흠어져 무의미해진 바를 다시 붙잡기 위해, 상처 난 기물의 조각들을 이어 붙인다. 킨츠기(金繕ぎ)는 일본에서 유래한 도자기 수리 기법이지만, 단순한 접합의 기술에 그치지 않는다. 어쩌면 누구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기물이기에, 작가는 먼저 기물에 담긴 소중한 사연을 귀 기울여 듣는다. 사용되며 사랑받았을 당시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며 작은 틈 사이로 옷칠과 금분, 사포를 번갈면 두세 시간에서 몇 달이 지나버린다. 다친 물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모두 아물 수는 없겠지만, 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된 집중력을 불어넣는다면, 사물이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줄 수 있다.</p> <p>@craft.rim</p> |
| 02 김비
Kim Bi | <p>FOA recycling center의 김비 작가는 버려진 가구를 해체해 재조합하며, 새로운 형태와 쓰임을 부여한다. 거리에 버려진 가구에 '왜'를 묻은 적이 있는가. 오늘도 수많은 가구들은 쓰임이 다하지 않았음에도 어딘가에 버려지고 있고, 대개 사람들은 버려진 가구를 무심히 지나쳐 간다. FOA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폐가구의 빈티지한 나무의 결과 질감을 살리고, 일반적인 가구의 모습을 벗어난 비정형의 오브제로 만든다. 원래 가구의 부품들은 본래의 모습을 활용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접합된다. 'Functional Or Aesthetic'이라는 캐치프레이즈답게, 김비 작가의 작품들은 가구로서의 기능과 조형적 아름다움 사이를 오간다.</p> <p>@foarecyclingcenter</p> |
| 03 김다정 플라워베리
Kim Dajung Flowerberry | <p>플라워베리 김다정 작가는 오브제와 플라워아트,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를 오가며 컬러와 소재를 워트 있게 풀어낸다. 작가는 무용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에 주목해 수집하고, 훗날 작업의 재료로 삼는다. 각기 다른 이야기와 시간을 가진 재료들은 구성과 해체를 반복하며 매번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며, 매번 새로운 쓰임 속에서 새로운 은유를 내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색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p> <p>@flowerberry_thedecorator</p> |
| 04 김태연
Kim Taeyoun | <p>김태연 작가는 재료의 실험과 도구의 변용으로 직조 표현의 확장을 시도한다. 섬유 작품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원사로 쓸 것인지 고민했고, 일상 속의 비닐을 택했다. 비닐봉지, 포대, 양파망 등은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편의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일상에 활기찬 색감과 사용성을 제공해 주는 고마운 존재다. 작가는 사물의 쓰임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비닐이라는 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엮는다. 한지 등 여러 다른 소재와 함께 평면 안에서 엮이며 유연한 공간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무 프레임의 의지하여 캔버스 삼아 화폭을 채워내기도 한다.</p> <p>@taeyoun_plasticbag</p> |
| 05 이상훈
Lee Sanghoon | <p>이상훈 교수는 기성품과 파손품의 경계에서 밀려난 이들을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따스한 식사 대접으로 복권시키려 노력한다. 전시장 안쪽 다이닝 테이블 위에는 물리적인 가장자리 접시와 심리적인 가장자리 와인잔 시리즈가 놓여 있다. 산업 현장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채 폐기되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대상들은 <The Loft Garden> 속에서 익살맞은 식기가 되어 더 많은 손님들을 환대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상훈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오브젝트 디자인 기획은, 완벽한 기준만을 쉬이 들이미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자기 인식과 따뜻한 여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p> |
| 06 이우재
Lee Woojai | <p>이우재 작가의 독특한 재료는 촉감을 매개해 형태와 이야기로 뻗어나간다. 오래된 신문지를 갈아 만든 펄프는 가구, 인테리어 요소, 회화 및 설치미술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다. 본 전시 공간인 303호 로프트에서는 샤워부스와 욕조를 타일의 형태로 장식한다. 이 은밀한 공간에서 타일은 더 이상 질서정연하고 매끈한 완전체가 아니라, 결점과 균열이 눈에 띄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 우리를 고독한 아늑함으로 감싸안는다. 이우재는 이렇듯 일상적인 감정과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재료의 잠재력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가 관찰해 포착한 내밀한 순간들은 결국 촉감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된다.</p> <p>@woojai</p> |
-